편집후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유익한 「건설기술 | 쌍용」을 만듭니다.

현장에서얻은귀중한교훈, 새로적용하는기술, 혼자만알고있기엔아까운노하우를「건설기술 | 쌍용」에풀어놓으세요. 여러분의귀한지식과경험을정성껏엮어보배로만들어드리겠습니다. Trouble Shooting, 기술강좌, 특허광장, 현장리포트, 체험기, Q&A 등에직접참여하고,「건설기술 | 쌍용」에서다룰만한참신한기획거리도알려주세요. 보내주신기술정보를「건설기술 | 쌍용」에소개하고, 참여해주신분께는소정의원고료를드립니다.
쌍용인의동반자「건설기술 | 쌍용」은언제나여러분앞에활짝열려있습니다. 앞으로도많은성원과격려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건설기술 | 쌍용」을위해일하게된새얼굴을소개합니다.

실무위원
기술개발부 **김상훈** 사원
02)3433-7712
madmax91@ssyenc.co.kr

원고접수처 ›››› 건설기술| 쌍용 을함께만드는편집 · 실무위원들

편집위원장 이세웅상무(7094, swlee@ssyenc.co.kr)
기술개발부 한덕희차장(7726, handh@ssyenc.co.kr) 김상훈사원(7712, madmax91@ssyenc.co.kr)
기 획 부 최세영과장(7117,chltpdud@ssyenc.co.kr) 김종범사원(7148, tiger@ssyenc.co.kr)
토목기술팀 이기환과장(7772, ikhjin@ssyenc.co.kr) 조영호대리(7769, cyh4@ssyenc.co.kr)
기 전 부 박동신대리(7404, pdssbb@ssyenc.co.kr)

●「건설기술|쌍용」은매분기마지막달(3, 6, 9, 12월) 1일에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발간되며, 발간일2개월전까지 의견을주시면편집에반영됩니다.

건설기술|쌍용

2002년 여름
통권 제23호(비매품)

발 행 인 김석준
편집/실무위원 편집위원장: 이세웅
편집위원: 홍종우, 한덕희
실무위원: 김상훈, 김종범, 박동신, 조영호
발 행 일 2002.6.1
발 행 처 쌍용건설주식회사서울시송파구신천동7-23(TEL:3433-7712, 7404)
e-mail:madmax91@ssyenc.co.kr
pdssbb@ssyenc.co.kr
제 작 처 (주)대통기획(TEL:2269-3613)

㈜이책의내용에대한저작권은쌍용건설 · 남광토건이가지고있으며, 본지의기사나사진등을무단으로전재, 또는발췌하여사용할수없습니다.

환경보호 당신이 먼저입니다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수욕장 역시 다른 일반 해수욕장처럼 여기저기 쓰레기가 뒹굴고, 모래를파면음식쓰레기에깨진병까지나오는쓰레기장에버금가는곳이었습니다. 그러던어느날, 지나가던 사람이해수욕장관리인에게물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사람들을왜 막지않느냐고…. 관리인은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 쓰레기를버리는사람들이손님이기때문에, 못버리게하면 다시는 오지 않을까봐걱정이 되서 그런다 "꼬…. 얼마후관리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온관리인은깨끗한해수욕장을만들기로결심하고사람들이쓰레기를버리지못하도록했습니다. 그러자해수욕장은조금씩깨끗해졌고더많은사람들이오기시작했습니다. 그해 수욕장에가면깨끗해서기분이좋고즐거웠기때문입니다. 무엇이 더중요한지사람들은알고 있었던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 환경의시대 ’라고불리는 21세기. 하지만아직도우리나라곳곳엔 쓰레기로 몸살을앓고 있는 곳이한둘이아닙니다. 곧, 휴가시즌이 다가옵니다. 올 여름에도많은사람들이바다로, 계곡으로휴가를떠나겠지요. 그러나 문제는그뒤입니다. 사람들이 다녀간 바다와 계곡은 온통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이러고도 과연 21세기를 ‘ 환경의시대 라고부를수있을까요? 환경, 이제당신이먼저입니다.